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의 ‘れる・られる’의 취급 현황

김 창 남*

(e-mail : cnkim42@hotmail.com)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1. ‘れる・られる’의 교과서별 용례 |
| 2. 선행연구 | 4.2. ‘れる・られる’가 접속한 동사 종류별 용례 |
| 3. 고찰자료 및 방법 | 4.3. ‘れる・られる’의 의미별 용례 |
| 4. 고찰 및 분석 | 5. 맺음말 |

キーワード：動詞(Verb), 助動詞 ‘れる・られる’(Auxiliary verb ‘reru・rareru’), 受動(Passive), 可能(Potential), 尊敬(Respect), 自発(Voluntary)

1. 머리말

일본어의 조동사 ‘れる・られる’는 ‘수동, 가능, 존경, 자발’ 등 4가지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의상 외(2007:352)에서는 아래의 (1)~(4)의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 (1) 友達にさそわれて映画を見に行きました。[수동]
- (2) 辛いキムチが食べられます。[가능]
- (3) 山田先生は友達を大事にされます。[존경]
- (4) いくら大きな事件でも時間が経つと忘れられてしまいます。[자발]

상기와 같이, ‘れる・られる’는 다소 사용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동, 가능, 존경, 자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접속 형태를 보면, (1)(3)과 같

* 금강대학교, 부교수, 일본어학·일본어 교육학

이 5단활용 동사 ‘さそう’와 불규칙 동사 ‘する’에 ‘れる’가 접속되는 경우와, (2)(4)와 같이 1단활용 동사 ‘食べる’와 ‘忘れる’에 ‘られる’가 접속되는 경우가 있다. 즉 ‘れる·られる’는 앞에 나타나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れる’가 접속되는 경우와 ‘られる’가 접속되는 경우로 분류된다.

또한 ‘れる·られる’가 ‘수동’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이자와 유카 외(2012:118-119)에서는 ‘れる·られる’의 ‘수동’의 용법을 (5)~(10)처럼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 (5) 弟が兄に叱られました。[직접수동]
- (6) その本はみんなに読まれています。[직접수동]
- (7) 昨日友達に来られて、勉強できませんでした。[간접수동]
- (8) 隣の家の赤ちゃんに泣かれて眠れませんでした。[간접수동]
- (9) (私は) 泥棒に自転車を盗られました。[소유자 수동]
- (10) (私は) 先生に息子をほめられました。[소유자 수동]

즉 상기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수동’의 의미를 (5)(6)처럼 ‘직접수동’, (7)(8)처럼 ‘간접수동’, (9)(10)처럼 ‘소유자 수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友松悦子 외(2010:622-625)에서는 ‘수동’의 용법을 (11)~(18)과 같이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 (11) 友だちにパーティーに招待されました。楽しみです。[수동]
- (12) うちを出るとき、母に呼びとめられて、用事を頼まれた。[수동]
- (13) 試験は3月15日に行われます。[비정수동]
- (14) この雑誌は若い人たちによく読まれています。[비정수동]
- (15) わたしは子どもにめがねを壊されて困っています。[소유자 수동]
- (16) わたしは先生に作文をほめられてうれしかったです。[소유자 수동]
- (17) きのう、となりの人に夜遅くまでさわがれて、うるさくて眠れませんでした。[피해수동]
- (18) 会議の間、となりの人にたばこを吸われて、気分が悪くなりました。[피해수동]

상기의 용례처럼, 友松悦子 외(2010)는 ‘수동’의 용법을 ‘수동’, ‘비정수동’, ‘소유자 수동’, ‘피해수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앞서 제시한 아이자와 유카 외

(2012)와 비교해 보면, 友松悦子 외(2010)에서는 아이자와 유카 외(2012)에서 제시한 ‘직접수동’을 ‘수동’과 ‘비정수동’으로 나누고, ‘간접수동’을 ‘피해수동’으로 칭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れる·られる’는 사역형에 접속하여 ‘사역수동’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오현정 외(2012:131)에서는 (19)~(22)의 예문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 (19) よく兄に泣かされました(泣かせられました)。
- (20) 私も母に習わされました(習わせられました)。
- (21) 私は友だちに1時間も待たされました(待たせられました)。
- (22) 先生に漢字を覚えさせられました。

이상과 같이, ‘れる·られる’는 앞에 나타나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れる’가 접속하는 경우와 ‘られる’가 접속하는 경우로 나누어지고, ‘れる·られる’의 의미 ‘수동, 가능, 존경, 자발’ 등 4가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본어학습자들이 ‘れる·られる’의 접속 형태와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れる·られる’처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비교적 습득이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표현의 경우는 교재편찬 및 현장교육에 있어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6종(12권)의 검정 일본어교과서를 자료로 하여, 이들 교과서에서는 조동사 ‘れる·られる’가 어느 정도 다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교과서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먼저 제7차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를 고찰자료로 하여 연구한 논문을 보면, 신민철(2007), 이하자·송수연(2009), 조남성(2012) 등이 있다. 이들 연구내용을 소개하면, 신민철(2007:14-15)에서는,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용 기본어휘가 각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고찰하고, 또 기본어휘와 실제 어휘조사

자료의 품사별, 어종(語種)별 구성에 대해 고찰 분석하여 기본 어휘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자·송수연(2009:49-50)에서는,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에 출현한 의성어·의태어를 일본 교육현장과 실생활에 출현한 의성어·의태어와 비교 분석하여,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의 의성어·의태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의성어·의태어 교육을 더욱 중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남성(2012:175-177)에서는, 제7차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 I 권을 고찰자료로 하여, 문자와 발음 연습의 어휘, な형용사의 기본형, 한자 사용, 어휘 사용, 용언 활용, 부자연스러운 ‘-のだ’표현, 의사소통 기본표현, 정보 요구의 의사소통 기본표현, 언어행동 문화, 인터넷 검색, 어휘색인 표제어의 배열 등 총 11개의 항목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그 이외도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를 고찰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지만 조동사 ‘れる·られる’의 취급 현황을 상세하게 고찰 분석한 연구는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7차 고등학교 검정 일본어교과서를 고찰자료로 하여 조동사 ‘れる·られる’의 취급 현황에 대해 고찰 분석하고자 한다.

3. 고찰자료 및 방법

본고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개편된 고등학교 검정 일본어교과서 중에 I 권과 II 권 모두 저자가 같고 검정을 받은 6종(12권) 교과서를 고찰자료로 사용하였다¹⁾. 이들 6종(12권) 교과서를 출판사별로 보면, (주)천재교육(‘천재 I, II’라고 부름), (주)교학사(‘교학 I, II’라고 부름), 대한출판사(‘대한 I, II’라고 부름)²⁾, 지학사(‘지학 I, II’라고 부름), 블랙박스(‘블랙 I, II’라고 부름), (주)진명출판사(‘진명 I, II’라고 부름) 등이다. 이들 교과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본고의 끝부분의 고찰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1) 본 논문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1권과 2권 모두 검정을 받은 6개 출판사의 교과서에 한정하여 고찰하였으나, 앞으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1권과 2권 모두 검정을 받은 교과서의 ‘れる·られる’의 취급 현황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2) ‘대한교과서’는 현재는 ‘(주)미래엔 교과서’로 변경되었으나 이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고찰방법은 6종(12권)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れる·られる’의 용례를 모두 수집하여, 이들 용례를 교과서별 및 동사 종류별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또한 ‘れる·られる’의 의미에 따라 ‘수동, 가능, 존경, 자발’로 분류한 후, 각 교과서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4. 고찰 및 분석

4.1. ‘れる·られる’의 교과서별 용례

먼저 ‘れる·られる’의 용례수를 교과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れる·られる’의 교과서별 용례수

교과서 구분 항목	천재		교학		대한		지학		블랙		진명		합계	
	I	II	I	II	I	II	I	II	I	II	I	II	I	II
れる·られる	0	41	0	26	0	21	1	20	1	13	0	2	2	123
	41		26		21		21		14		2		125	

상기의 <표1>의 용례수를 교과서별로 보면, ‘れる·られる’의 전체 용례 125개 중에 ‘천재’가 41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학’이 26개, ‘대한’과 ‘지학’이 21개, ‘블랙’이 14개, ‘진명’이 2개로, 특히 ‘진명’의 경우는 다른 교과서보다 그 차이가 크다. 이와 같이 ‘れる·られる’의 취급에 있어 교과서별로 크게 다르면 각 고등학교가 어떤 종류의 교과서를 선정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 ‘れる·られる’의 학습내용 또한 많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れる·られる’처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의 경우는 사용빈도와 중요도를 감안하여 교과서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서 집필에 있어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과서 I 권과 II 권의 용례수를 보면, I 권에서는 ‘지학’과 ‘블랙’에서만 각각 1개 용례씩 다루고 있는 반면, II 권에서는 총 123개의 용례를 다루고 있다. 즉 이러한 결과를 통해, 6종 교과서 대부분이 ‘れる·られる’의 용례를 II 권

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れる·られる’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습자들의 레벨이 일정 이상 도달한 시점에서 도입해야만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れる·られる’의 앞에 나타난 동사 및 용례수를 교과서별로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れる·られる’의 앞에 나타난 동사 및 용례수

동사 교과서	동사 및 용례수	합계
천재	しかる(10), 言う(5), ふる(4) 開く(4), ほめる(3), ばける(3), 思う(2), きらう, 来る, しつもんする, 行く, 食べる, かむ, 作る, 愛する, 教える, たのむ.	17개 (41용례)
교학	言う(6), ほめる(2), わすれる(3), うける(2), 食べる(2), 送る, 知る, 読む, はげます, 入院する, じ야ます, 帰る, 立てる, 作る, みる, 反対する.	16개 (26용례)
대한	見る(5), 食べる(3), わすれる(3), 作る(3), たのむ(2), 建てる, 覚える, 教える, 聞く, 答える.	10개 (21용례)
지학	来る(3), 開く(2), すてる(2), 調べる, 伝える, 行う, 選ぶ, つかう, ほめる, 答える, 書く, かぞえる, 見る, 頼む, 起きる, 待つ.	16개 (21용례)
블랙	開く(4), ふる(2), 行う, かむ, 歌う, 食べる, ほめる, ふむ, 呼ぶ, 見る.	10개 (14용례)
진명	来る, 感じる	2개 (2용례)
합계		71개 (125용례)

(표의 동사 우측의 ()숫자는 용례수를 나타낸다)

즉 상기의 <표2>는 고찰자료인 6종(12권)의 검정 일본어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125개의 용례에 대해, ‘れる·られる’의 앞에 나타난 동사와 이들 동사가 사

용된 용례수를 교과서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하, 4.2에서는 ‘れる・られる’가 접속한 동사 종류별 용례에 대해 고찰하고, 4.3에서는 ‘れる・られる’의 의미별 용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4.2. ‘れる・られる’가 접속한 동사 종류별 용례

‘れる・られる’가 접속한 동사를 종류별로 ‘5단활용 동사’(이하 ‘5단활용’이라 부름), ‘1단활용 동사’(이하 ‘1단활용’이라 부름), 불규칙 동사 ‘来る’, ‘-する’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れる・られる’의 동사의 종류별 용례수

교과서 동사종류	천재	교학	대한	지학	블랙	진명	합계
5단활용	30(10)	12(7)	6(3)	8(7)	11(7)	0	67(34)
	73.17%	46.15%	28.57%	38.10%	78.57%	-	53.60%
1단활용	8(4)	11(6)	15(7)	10(8)	3(3)	1(1)	48(29)
	19.51%	42.31%	71.43%	47.62%	21.43%	50%	38.40%
来る	1(1)	0	0	3(1)	0	1(1)	5(3)
	2.44%	-	-	14.29%	-	50%	4.00%
-する	2(2)	3(3)	0	0	0	0	5(5)
	4.88%	11.54%	-	-	-	-	4.00%
합계	41(17)	26(16)	21(10)	21(16)	14(10)	2(2)	125(71)

(표 안의 숫자는 ‘용례수(동사수)’를 나타낸다)

위의 <표3>에서 용례수의 합계를 보면, ‘5단활용’이 67개로 53.6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 ‘1단활용’이 48개로 38.40%, ‘来る’와 ‘-する’가 각각 5

개로 4.0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れる・られる’의 용례 취급에 있어서 ‘5단활용’에 접속된 용례와 ‘1단활용’에 접속된 용례의 비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교과서별로 보면, ‘천재’의 경우는 ‘5단활용’이 30개로 73.17%를 차지하여 다른 동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1단활용’이 8개, ‘来る’가 1개, ‘-する’가 2개로 나타났다. 또한 ‘블랙’의 경우도 ‘5단활용’이 11개, ‘1단활용’이 3개로 전자가 후자에 비해 많이 나타나 ‘천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来る’와 ‘-する’의 용례는 1개도 나타나지 않았다.

‘교학’의 경우는 ‘5단활용’과 ‘1단활용’이 12개와 11개로 양자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する’가 3개이고, ‘来る’의 용례는 1개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대한’과 ‘지학’의 경우는 ‘5단활용’보다 ‘1단활용’의 용례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들의 용례 수를 보면, ‘대한’은 ‘5단활용’이 6개이고, ‘1단활용’은 15개인 반면, ‘지학’은 전자가 8개이고 후자는 10개이다. 단 ‘대한’에서는 ‘来る’와 ‘-する’의 용례가, ‘지학’에서는 ‘-する’의 용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진명’의 경우는 ‘1단활용’과 ‘来る’의 용례가 각각 1개씩 나타났고, ‘5단활용’과 ‘-する’의 용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れる・られる’의 용례 취급에 있어 동사별 또는 교과서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교과서에 따라서는 ‘5단활용’, ‘1단활용’, ‘来る’, ‘-する’ 중에 어떤 특정한 종류의 동사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れる・られる’의 접속방법과 활용능력을 제대로 습득시키기 위해서는 ‘れる・られる’가 ‘5단활용’, ‘1단활용’, ‘来る’, ‘-する’ 각각에 접속하는 용례를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れる・られる’의 앞에 나타난 실제의 동사와 각 동사의 용례수를 교과서별로 제시하면 <표4>와 같다.

<표4> ‘れる・られる’가 접속한 동사 및 동사별 용례수

동사 교과서	동사별 용례 및 용례수		합계
천재	5단활용	しかる(10), 言う(5), ふる(4), 開く(4), 思う(2), きらう, かむ, 作る, たのむ, 行く.	10(30)
	1단활용	ほめる(3), ばける(3), 食べる, 教える.	4(8)

	来る	来る.	1(1)
	-する	しつもんする, 愛する.	2(2)
	합계		17(41)
교학	5단활용	言う(6), 帰る, 送る, 知る, 読む, はげます, 作る.	7(12)
	1단활용	わすれる(3), ほめる(2), うける(2), 食べる(2), 立てる, みる.	6(11)
	来る	-	0
	-する	入院する, じゃまする, 反対する.	3(3)
	합계		16(26)
대한	5단활용	作る(3), たのむ(2), 聞く.	3(6)
	1단활용	見る(5), 食べる(3), わすれる(3), 建てる, 覚える, 教える, 答える.	7(15)
	来る	-	0
	-する	-	0
	합계		10(21)
지학	5단활용	開く(2), 行う, 選ぶ, つかう, 書く, 頼む, 待つ.	7(8)
	1단활용	見る(2), すてる(2), ほめる, 伝える, 調べる, 答える, かぞえる, 起きる.	8(10)
	来る	来る(3).	1(3)
	-する	-	0
	합계		16(21)
블랙	5단활용	開く(4), ふる(2), 行う, かむ, 歌う, ふむ, 呼ぶ.	7(11)
	1단활용	見る, 食べる, ほめる.	3(3)
	来る	-	0
	-する	-	0
	합계		10(14)
진명	5단활용	-	0
	1단활용	感じる.	1(1)
	来る	来る.	1(1)
	-する	-	0
	합계		2(2)
총계			71(125)

다음은 ‘れる·られる’의 용례를 의미별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4.3. ‘れる·られる’의 의미별 용례

‘れる·られる’의 의미별 용례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5> ‘れる·られる’의 의미별 용례수

교과서 의미	천재	교학	대한	지학	블랙	진명	합계
수동	34	18	7	11	13	0	83
	82.93%	69.23%	33.33%	52.38%	92.86%	-	66.40%
가능	5	7	14	8	1	1	36
	12.20%	26.92%	66.67%	38.10%	7.14%	50.00%	28.80%
존경	1	1	0	1	0	0	3
	2.44%	3.85%	-	4.76%	-	-	2.40%
자발	1	0	0	1	0	1	3
	2.44%	-	-	4.76%	-	50.00%	2.40%
합계	41	26	21	21	14	2	125

상기의 <표5>는 ‘れる·られる’의 용례수를 의미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인데, 합계를 보면, ‘수동’이 83개로 66.4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능’이 36개로 28.80%, ‘존경’과 ‘자발’이 각각 3개로 2.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れる·られる’는 4가지 의미 중에 ‘수동’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례가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과서별로 보면, 용례 수가 가장 많은 ‘천재’의 경우는 41개 중에 ‘수동’이 34개로 82.93%를 차지하여 다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능’이 5개로 12.20%, ‘존경’과 ‘자발’이 각각 1개씩 나타났다. ‘교학’의 경우는 26개 중에 ‘수동’이 18개로 69.2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가능’이

7개로 26.92%, ‘존경’은 1개인데, ‘자발’의 경우는 1용례도 없었다.

반면, ‘대한’의 경우는 21개 중에 ‘수동’이 7개로 33.33%인데 반해, ‘가능’이 14개로 66.67%를 차지하여 ‘가능’의 용례가 ‘수동’보다 많이 나타났다. 단, ‘존경’과 ‘자발’의 용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학’의 경우는 ‘수동’이 11개로 52.38%, ‘가능’이 8개로 38.10%, ‘존경’과 ‘자발’이 각각 1개씩 나타났다.

‘블랙’의 경우는 ‘수동’이 13개로 92.86%인데 반해, ‘가능’은 1개이고, ‘존경’과 ‘자발’은 1용례도 다루지 않았다. 즉 ‘블랙’은 거의 ‘수동’의 용례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명’의 경우는 ‘수동’과 ‘존경’의 용례는 전혀 다루지 않고 ‘가능’과 ‘자발’의 용례만 1개씩 다루고 있다.

상기의 결과를 정리하면, ‘천재’ ‘교학’ ‘지학’ ‘블랙’의 경우는 다소 용례수의 차이는 있지만 ‘수동’의 용례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가능’의 용례인데 반해, ‘대한’은 ‘수동’보다 ‘가능’의 용례를 더 많이 다루고 있다. 반면, ‘진명’의 경우는 ‘수동’과 ‘존경’의 용례는 전혀 다루지 않고, ‘가능’과 ‘자발’만 1용례씩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れる·られる’의 ‘수동, 가능, 존경, 자발’의 각각의 용례수가 교과서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 고등학교 검정 일본어교과서의 ‘れる·られる’의 취급 현황에 대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는 ‘れる·られる’의 용례수를 교과서별로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는 동사 종류별 용례수는 ‘5단활용’에 접속된 용례가 53.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1단활용’에 접속된 용례는 38.40%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는 ‘れる·られる’의 ‘수동, 가능, 존경, 자발’의 용례수를 교과서별로 비교해 보면 ‘천재’ ‘교학’ ‘지학’ ‘블랙’에서는 ‘수동’의 용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능’의 용례가 많은 반면, ‘대한’에서는 ‘수동’보다 ‘가능’의 용례가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진명’에서는 ‘가능’과 ‘자발’의 용례만 각각 1개씩 다루고 있다.

상기의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가 어떤 종류의 교과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가에 따라 ‘れる·られる’의 학습내용 또한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れる·られる’처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의 경우는 사용빈도와 중요도

를 감안하여 교과서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서 집필에 있어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신민철(2007)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어휘의 양상 문제-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33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14-15.
- 아이자와 유카, 오현정, 하스이케 이즈미, 박행자(2012) 『NEW 다이나믹 일본어 Step1』 다락원, pp.118-119.
- 이하자·송수연(2009)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에 나타난 의성어·의태어 연구-일본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일본 만화와의 비교를 통하여-」 『일본어교육』 제48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49-50.
- 오현정, 하스이케 이즈미, 박행자, 아이자와 유카, 박준효, 이나가와 유우키(2012) 『NEW 다이나믹 일본어 Step2』 다락원, p.131.
- 조남성(2012) 「현행(2007년 개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의 분석」 『일본어문학』 제54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175-177.
- 정의상·정일영(2007) 『귀로 쓱쓱 일본어 문법』 다락원, p.352.
- 友松悦子, 宮本淳, 和栗雅子(2010) 『일본어문형 630』 (주)시사일본어사, pp.622-625.

<고찰자료>

- ‘천재 I’ : 양순혜 외 3인(2003) 『고등학교日本語 I』 (주)천재교육
- ‘천재 II’ : 양순혜 외 3인(2004) 『고등학교日本語 II』 (주)천재교육
- ‘교학 I’ : 이봉희 외 1인(2003) 『고등학교日本語 I』 (주)교학사
- ‘교학 II’ : 이봉희 외 1인(2004) 『고등학교日本語 II』 (주)교학사
- ‘대한 I’ : 김숙자 외 3인(2002) 『고등학교日本語 I』 대한출판사
- ‘대한 II’ : 김숙자 외 3인(2003) 『고등학교日本語 II』 대한출판사
- ‘지학 I’ : 김효자 외 2인(2003) 『고등학교日本語 I』 도서출판 지학사
- ‘지학 II’ : 김효자 외 2인(2003) 『고등학교日本語 II』 도서출판 지학사
- ‘블랙 I’ : 한미경 외 3인(2002) 『고등학교日本語 I』 블랙박스
- ‘블랙 II’ : 한미경 외 3인(2003) 『고등학교日本語 II』 블랙박스
- ‘진명 I’ : 유길동 외 3인(2002) 『고등학교日本語 I』 (주)진명출판사
- ‘진명 II’ : 유길동 외 3인(2003) 『고등학교日本語 II』 (주)진명출판사

논문 투고 일자 : 2018. 04. 15. 논문 심사 일자 : 2018. 04. 30. 게재 확정 일자 : 2018. 05. 09.
--

<要旨>

高等学校の日本語教科書における「れる・られる」の取扱現況

金昌男

本稿では、高等学校で使っている6種(12冊)の検定日本語教科書を資料とし、助動詞「れる・られる」の用例について考察を行った。その結果、以下のことがわかった。

第一、「れる・られる」の用例数が教科書によってかなり異なっ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

第二、「れる・られる」の前接動詞の用例を種類別にみると、「五段活用」に接続されたものが53.60%であるのに対し、「一段活用」に接続されたものは38.40%で前者が後者より多く見られた。

第三、「れる・られる」の用例を意味別に「受身、可能、尊敬、自発」に分類した結果、それぞれの用例数が教科書別により異なっ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

以上の結果より、高等学校がどのような種類の教科書を選択するかによって「れる・られる」の学習内容も異なってくると予測できよう。したがって、「れる・られる」のように使用頻度の高い表現の場合、教科書を執筆する際にそれぞれの教科書の間で大きく偏った差が生じることがないように十分な注意が必要とされる。

A study on the usage of reru and rareru in high school Japanese textbooks

Kim, Chang-Na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usage of the auxiliary verbs reru and rareru in high school Japanese textbooks. Base on the analysis of six kinds of textbooks, the following results were discovered.

First, the frequency of reru and rareru usage varied significantly between the textbooks.

Second, in terms of verb types, 53.60% of examples were related to "Godan verbs," whereas 38.40% were related to "Ichidan verbs."

Third, when example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meaning of reru and rareru into "passive," "potential," "respect," and "voluntary," distinctive differences between the textbooks were observed.

The above findings show that the teaching of reru and rareru differ greatly depending on the textbook that is chosen by the high school. Therefore, frequently used phrases like reru and rareru require particular attention when writing and developing Japanese textbooks.